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계의 지형: 전후 첫 『음악연감』(1966년) 해제

이희경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1. 들어가며
2. 『음악연감』(1966)의 구성
 - 1) 표지와 판권
 - 2) 목차
 - 3) 편찬 주체와 집필자
 - 4) 편찬 목적·방식과 편집체제
3. 주요 수록 내용 분석
 - 1) 해방 20년에 돌아본 한국음악 70년사
 - 2) 1965년 음악계 동향
 - 3) 음악 기관·단체와 음악인 목록
 - 4) 광고로 본 1960년대 중반 음악문화
4. 나가며: 『음악연감』(1966)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

개 요

‘연감(年鑑)’은 특정 분야의 한 해 활동과 현황을 정리한 기록물로, 통계나 목록을 넘어 편찬 주체의 인식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의미를 지닌다. 『음악연감』(1966)은 한국에서 처음 발행된 본격적인 음악연감으로 1965년 한 해의 음악 활동을 정리하는 동시에 한국 음악계의 지난 역사를 집약적으로 서술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국내 첫 『음악연감』(1966)을 해제하며,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계의 지형을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다. 먼저 연감의 형태와 구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뒤, 주요 수록 내용을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해방 20년에 돌아본 한국음악 70년사, 1965년 음악계 동향, 음악 단체와 음악인 목록에 드러난 특징, 광고로 본 1960년대 중반 음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음악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감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 한국 현대음악사 서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음악연감』(1966)은 정보의 편중과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후 한국 음악사 서술에 유의미한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960명에 이르는 인명록은 당시 음악가들의 출신 지역·전공·직업 분포를 통해 음악계의 인적 구성을 기능하게 하며, 광고 지면은 악기 제작과 음악교육 중심의 산업 구조, 공연기획과 매니지먼트의 부재 등 1960년대 중반 음악 생태계의 실태를 보여준다. 전후 음악계의 현실을 폭넓게 담아낸 기록으로서 『음악연감』(1966)은 한국 현대음악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참조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료임이 분명하다.

주제어: 『음악연감』, 한국음악사, 해방 20년, 1960년대, 1965년 음악계

1. 들어가며

음악사 서술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나 인물 중심의 기술을 넘어, 당대의 음악 활동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1차 사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해당 사료를 당대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읽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 현대음악사, 특히 해방 이후부터 산업화 이전까지의 시기는 아직 체계적 정리와 분석이 미진하다. 이 시기의 음악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잡지 기사, 공연 자료, 음악가의 저술, 연감 등 다양한 기록을 활용하여 동시대의 흐름과 담론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연감(年鑑)’은 특정 분야의 한 해 활동을 분류·정리·체계화한 기록물로서, 주요 사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록한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지닌다. 또한 연감은 단순한 통계나 목록을 넘어 편찬 주체의 인식, 시대적 과제, 업계의 방향성 등을 반영하기에 문화사적·제도사적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음악연감은 당대 음악계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음악사 서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해제 대상으로 삼은 『음악연감』(1966)¹⁾은 한국에서 처음 발간된 본격적인 음악연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다.²⁾

1) 60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음악계에 널리 배포된 자료라 소장처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 도서관에서 원문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 도서관 20여 곳에 소장되어 있어 실물 확인도 가능하다.

2) 해방기 발간된 『예술연감』에도 ‘음악’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박영근, “음악계,” 『예술연감 1947년판』, 서울: 예술신문사, 1947, 30-39 참조), 그러나 이는 조선음악기동맹 소속 개인이 작성한 10쪽 분량의 글로, 사료적 한계와 내용적 편향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49년에도 음악연감 발간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양악과 국악 및 경음악을 포함한 음악연감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고(“최초의 음악연감 편위에서 준비 중,” 『경향신문』 1948.11.30.), 이듬해에는 예정되었던 음악연감의 확장 발간을 위해 해방 이후 음악문화 운동을 조사 중이니 지방 음악가들의 협력을 요

1965년 한 해의 국내 음악 활동을 정리하는 동시에, 한국 음악계의 지난 흐름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최초의 『음악연감』(1966)을 해제하며, 이를 토대로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계의 지형을 재구성해 보려 한다. 먼저 연감의 형태와 구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뒤, 주요 수록 내용을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분석한다. 해방 20년에 돌아본 한국음악 70년사, 1965년 음악계 동향, 음악 단체와 음악인 목록에 드러난 특징, 광고로 본 1960년대 중반 음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음악계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연감』(1966)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 한국 현대음악사 서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2. 『음악연감』(1966)의 구성

1) 표지와 판권

음악연감편찬위원회가 펴낸 『음악연감』(1966)은 국판(A5 사이즈) 우철 세로쓰기 책이다. 제목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지만, 본문은 모두 4단 구성의 세로쓰기이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눈에 띄는 특징은 책의 판형·표지·표제지·목차는 물론 각 부를 나누는 내지(도비라)·관계인명록·사진 화보·광고 배치까지 일본에서 발간된 『音樂年鑑』의 체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64년도 일본 연감과 비교하면, 접지식 목차와 서체 및 레이아웃도 동일하다. 물론 책의 분량이나 내용, 종이 질이나 인쇄 상태는 일본판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국내에서 처음 발간되는 연감이라 일본판을 모델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같은 시리즈의 책

청한다는 기사도 나온다(“음악연감 불원완성,” 『연합신문』 1949.6.24.; “음악연감 편집진보,” 『조선일보』 1949.6.24.). 기사에는 편찬위 사무실 주소(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4 삼의사 내)와 상임위원 윤용하의 이름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발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계의 지형 11

으로 보일 만큼 유사한 포맷은 196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의 영향이 여전히 지대했음을 보여준다.³⁾

[그림 1] 『음악연감』 표지, 표제지, 판권 및 접지식 목차



해방 20년을 맞이한 1965년을 정리한 음악연감으로, 1966년 2월 25

3)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본판 『音樂年鑑』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대정 13년(1924년), 소화 5~13년(1930~1938년)의 일제강점기 판본은 물론이고, 1958~2005년 음악지우사 간행본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방 후에도 국내 음악인들이 일본 음악연감을 참고해 약계의 흐름을 살폈음을 시사한다.

일⁴⁾ 세광출판사⁵⁾에서 발행되었으며 분량은 대략 280면에 이른다. 정확한 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쪽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부별로 새로 매겨지는 데다,⁶⁾ 광고가 많고 접지식 지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다. 가격은 500원이었는데, 당시 월간지 『음악생활』이 100원, 명곡해설집이나 음악사 책이 200원에서 350원 선이었으니,⁷⁾ 이 연감은 기획과 제작에 상당한 공을 들여 만든 출판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목차

『음악연감』(1966)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음악연감』(1966) 주요 내용

번호	제목	소제목	쪽수
I	악계의 동향	총론 / 작곡 / 연주 / 평론 / 오페라 / 교향악 / 교육음악 / 합창 / 실내악 / 관악 / 아동음악 / 레코드음악 / 영화음악 / 국악 / 대중음악 / 무용 / 출판 / 지방악단 * 콩쿠르 수상자 / 65년도 전국음대 졸업자	58
II	음악 70년사 무용 40년	8·15전 / 8·15 후 / 오페라공연 20년 기록 / 무용 40년	32
III	음악관계인명록	국악관계인명록 / 양악관계인명록 / 무용관계인명록 / 대중음악관계인명록 / 재외음악가 / 작곡음악가	82
IV	연주단체 · 음대 · 연구소 관계단체 · 업계	음악대학 · 연구소 / 연주단체 / 관계단체 / 관계업계 / 음악출판사 및 판매소 / 주요악기제작소 / 주요악기사 / 레코드회사 / 음악 · 무용회장 / 주한외국공관	12

4) 판권에는 발행일 2월 25일, 인쇄일 3월 1일이라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인쇄일이 발행일보다 앞서는데, 편집상의 착오이거나 발행 예정일을 미리 기입한 후 실제 인쇄가 늦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당시 일부 출판물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발행 허가일을 발행일로 오인하여 표기한 사례로 확인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5) 세광출판사(현 세광음악출판사)는 1953년 시작된 우리나라 대표 음악 출판 기업의 하나다. 처음엔 대중가요 출판을 주로 했으나 1960년대 이후 점차 클래식 악보출판에 주력하게 되었고, 1966년에는 명곡해설전집과 음악 문고판을 판매 중이었다.

6)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연감의 쪽수는 앞에 부 표시를 붙여 'II-00쪽'으로 쓴다.

7) 이 연감에 실린 출판사 광고에서 당시 음악 교양서적들의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

1965년 음악계를 조망한 I부 ‘악계의 동향은 총론에 이어 각 부문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교육음악과 별도로 아동음악이 포함되었고, 레코드음악과 영화음악 항목이 눈길을 끈다. 지방악단의 활동도 정리되어 당시 전국 악단의 현황을 대략적이거나 살펴볼 수 있다.⁸⁾ 부록 격으로 콩쿠르 수상자와 1965년도 전국 음대 졸업자 명단이 실렸는데, 1961년 시작된 동아음악콩쿠르를 제외하면 모두 대학 주관 행사였다. 동아음악콩쿠르 1~5회 수상자 명단에는 이후 한국음악계의 주축을 이루는 1940년대생 음악가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⁹⁾ 국악 분야 민속예술경연 수상자와 1962년부터 공보부가 수여한 신인예술상(국악·양악·무용), 대통령 문화훈장, 예술원상, 서울시 문화상, 문교부 5월 문예상의 수상 내역도 확인된다. 전국 9개 대학 398명의 졸업자 명단은 1965년 당시 음악대학 설치 현황과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다.¹⁰⁾

II부에는 지난 역사를 갈무리한 ‘음악 70년사와 무용 40년’이 수록되었다. 음악사는 8.15를 기점으로 전후가 나뉘어 서술되었으며, 오페라 공연 20년의 궤적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I부 ‘악계의 동향에서도 작곡·연주·평론 다음에 바로 오페라가 나오는데, 그만큼 당시 음악계에서 오페라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목차에는 빠져 있지만, 8.15 이후와 오페라 공연 20년 기록 사이에 김형주의 글 “향상과 침체 속의 65년도 음악계”가 실려 있다.¹¹⁾ I부 총론 박태현의 글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거기서 다

8) 몇 지역(경상북도와 경기도, 강원도와 제주도)은 빠졌는데, 편집후기에 따르면 내부 과별로 인해 자료가 제대로 입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IV-12쪽.

9) 1회(1961): 작곡부 박준상, 피아노부 신수정, 바이올린부 민초혜, 첼로부 이종영, 2회(1962): 성악부 이규도, 피아노부 이대옥, 첼로부 이방은, 3회(1963): 작곡부 이귀자, 바이올린부 김남윤·김민, 제4회(1964): 작곡부 이여진·이성천, 피아노부 문용희 등. I-49쪽.

10) 졸업생 규모는 서울대 음대(85명)·이대 음대(79명)·숙대 음대(64명)·경희대 음대(53명) 순이지만, 기악과는 이대 음대가 54명, 성악과는 서라벌예대(1972년 중앙대로 통합)와 숙대 음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다. 또한 당시에는 수도사대(세종대의 전신) 음악과의 졸업생 규모가 31명으로 연세대 음대 25명, 한양대 9명보다 컸다. 계명대 외에는 모두 서울 소재 대학들이다.

루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해된다. II부 말미에는 196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주·발표회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¹²⁾

III부 ‘음악관계인명록’에는 국악 128명, 양악 638명, 무용 74명, 대중음악 22명, 재외음악가 41명, 작곡 음악가 57명, 총 960명의 전공·주소·생일과 출생지·학력·경력·소속단체·사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¹³⁾ 양악인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10개 지역별로 정리되었는데, 서울이 34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경남 91명, 경북 48명이 그 뒤를 잇는다. 당시 음악가의 전공별 분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일수록 성악과 작곡 비율이 높다. 무용은 고전·현대·교육·발레 가운데 고전이 약 50%, 발레가 20%를 차지한다. 대중음악인은 작곡가와 방송국 소속 혹은 본인 악단을 운영하는 이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재외음악가는 일본과 미국이 대부분인데, 일본에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물이 다수라면, 미국은 1960년대 이주한 원로 음악가와 유학생도 포함되었다. 유럽은 유학 후 현지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중(파리), 작곡가 윤이상(베를린), 바이올리니스트 이희춘·임유석(스톡홀름)이 소개되었다. 작곡 음악가에는 국악인이 많이 포함되었고, 유명 양악인의 경우 사진도 함께 기록되었다. 연감에서 광고 다음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III부 인명록이다.

IV부에는 음악계 활동 주체인 교육기관과 연주단체, 관련 단체와 업계(악기·출판·음반 등)가 최대한 망라되었다. 교육기관에는 I부 대학졸업자 명단에 없던 성심여대·조선대·효성여대 음악과까지 12개 고등교육기관, 서울예고와 국악예술학교 같은 중등교육기관 외에 음악학원·국악연구소·무용연구소

11) 이 글은 김형주가 1965년 한 해를 결산하며 쓴 신문 기고문을 확대 보완한 내용이다. 김형주, “1965년 문화계 (음악). 케도에 오른 오페라. 음악회 서울서만 백여 회,” 『경향신문』 1965.12.25. 참조.

12) 이 기록에는 전문 연주자의 무대뿐 아니라 대학 정기연주회, 어린이음악회, 합창 공연까지 망라되어 있다.

13) 편집후기에 따르면 전국 2,500여 명의 음악인에게 편지를 보내 1천 명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

등 총 38개 교육기관의 주소·전화번호·대표 이름이 정리되어 있다. 25개 연주단체들(오페라단·교향악단·합창단·실내악단 등)의 창단일·주소·인원 등 당시 현황도 알 수 있다. 관계단체는 대부분 음악교육 관련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평론동인회·한국음악협회의 이름이 올라있다. 관계업계는 악기점이 84곳으로 압도적으로 많고,¹⁴⁾ 그 밖에 레코드 제작사(9)와 판매점(18), 음악 출판사와 판매점(6)이 나온다. 1960년대 중반 대표 공연장 세 곳(국립극장·시민회관·드라마센터)의 주소와 대표자 이름, 담당자와 대관료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2곳의 주한 외국공관을 포함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¹⁵⁾

그 외 광고 목차도 분야별로 총 81개가 정리되어 있다.¹⁶⁾ 악기 제작소 및 판매소(17), 악보 출판사 및 판매점(7), 음악대학·학원 연구소(18), 연주단체·협회(23), 레코드(3), 음악·무용회장(3), 관계업체·기타(13). 관계업체·기타 광고에는 방송국(6)과 음악감상실(3)을 포함해 국제관광공사·대한금융단·파리사장(사진관)·교육무용이 실렸다.

본문 앞에는 8쪽의 사진 화보가 수록되어 있어, 1965년도 악단의 주요 이슈를 알 수 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음악가’로 지휘자 원경수·작곡가 윤이상,¹⁷⁾ 황병기·우중갑·이청·한동일,¹⁸⁾ ‘1965년 주요행사’로 흥난

14) 지역별로는 서울 31곳을 포함해 경북 16곳, 전남 11곳, 부산과 전북 7곳 등 전국 각지에 악기사들이 널리 포진되어 있다.

15) 교향사절단과 미국·영국 등 12개 대사관, 덴마크·스웨덴 등 6개 영사관 외에 국제연합(UN)·한국통일부흥위원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שמ(미국원조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리되어 있다.

16) 광고면은 본문과 별도로 쪽수가 매겨졌으며, ‘廣’88쪽까지 있으나 중간에 누락된 번호도 있다. 표지·표제지·목차·속지 뒷면에는 쪽수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수록된 광고의 총수가 88개이긴 하다. 본문 하단에 삽입되어 목차에는 누락된 광고들도 있다. 예컨대 호프만피아노(화보 마지막쪽 뒷면), 대한합창단(I-48쪽), 한국음악협회(II-27쪽), 강선영고전무용연구소(III-70쪽), 중앙여고교향악단과 성신여고스트링오케스트라(IV-10쪽) 등.

17) 미국 뉴올리언스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활동 중이던 원경수는 1965년 귀국해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을 지휘했고, 윤이상은 하노버에서 오라토리오 <옴 마니 반 메훔>을, 베를린에서 단막 오페라 <류통의 꿈>을 발표한 것이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과와 현제명의 문화훈장 추서·안익태 추모, 수상자로 김원복(예술원상)·임원식(서울시문화상)·장사훈(오월문예상)의 사진이 수록되었다. ‘내한 연주가’로 여류 피아니스트 루스 스펀친스카·보스턴 팝스 지휘자 아서 피들러·클래식 기타리스트 지그프리드 베렌트·소프라노 이소벨 베일리의 연주 모습이 소개되었다.¹⁹⁾ 1965년 을사년에 창단한 악단들(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영필관현악단·브라스 앙상블)을 ‘뱀띠생’이라는 항목으로 실은 것이 흥미로웠다. 화보의 마지막은 국내 악단으로 첫 일본 공연에 나선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 김만복)의 도쿄 히비야공회당 연주 사진이다.

3) 편찬 주체와 집필자

『음악연감』(1966) 편찬에는 악단의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다. 18명으로 구성된 ‘음악연감편찬위원회’에는 금수현·김성태·김형주·나운영·남궁요열·남상국·박용구·박찬석·박태현·이성삼·이진태·이흥렬·이상만·장사훈·정세문·조동화·조두남·최영환의 이름이 올라 있다.²⁰⁾ 음악평론가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인지 편찬 주체를 ‘음악평론동인회’로 보도한 기사도 있다.²¹⁾ 집필진은 각 분야의 대표자

18) 1965년 황병기는 하와이에서 열린 금세기음악예술제에 참가해 가야금 연주로 한국음악을 널리 소개했고, 일본에서 활동하던 우중갑도 도쿄방송(TBS) 주최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한동일도 레벤트리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재일교포로 당시 빈에서 유학 중이던 피아니스트 이청은 일본 마이니치 음악콩쿠르에 수석 입상해 국내 음악계에도 이름이 알려졌다.

19) 슈트روی(바이올린)와 슈터이러(피아노)라는 이름의 듀오 연주 사진도 실렸으나, 이름 오타인지 당시 내한 기사를 찾기 어렵고 이들의 정확한 이름도 확인할 수 없었다.

20) 이름이 알려진 작곡가와 평론가 외에, 남상국은 당시 방송국에서 음악감상을 담당한 프로 듀서였고, 동요 작곡가 정세문은 문교부 편수관으로 참여했다. 이진태와 조두남은 각각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을 대표한 것으로 보인다. 무용평론가 조동화는 당시 동아방송국 제작과장이었으며, 1976년 월간 『춤』을 창간한 인물이다.

21) “음악연감 발간예정. 음악평론동인회,” 『동아일보』 1965.8.17.

들과 지역 음악가들이 망라되었다.

편찬위원회 대표인 박태현이 서문과 총론을 썼고, 편찬위원들을 중심으로 부문별 집필이 이뤄졌다. I부 집필자들은 작곡(나운영), 연주(이성삼), 평론(박용구), 오페라(이유선), 교향악(김형주), 교육음악(박찬석), 합창(이유선), 실내악(전봉초), 관악(남궁요열), 아동음악(손대업), 레코드음악·영화음악(김수현), 국악(장사훈), 대중음악(손목인), 무용(조동화), 출판(최영환), 지방악단의 충청북도(임재문)·충청남도(이진태)·경상남도(조두남)·전라북도(천길량)·전라남도(신동민), II부 70년사의 8.15 이전(김성태), 8.15이후(이상만), 65년 음악계(김형주), 무용40년(조동화) 등, 총 22명이다.

집필자에 따라 정보의 밀도와 분량이 들쭉날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으나, 일부 글은 집필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남긴다. 분량이 길다고 해서 내용이 충실한 것은 아니지만, 오페라와 합창 부문은 당시 활동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소략하여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서양음악 중심의 구성 속에서도 국악과 대중음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집필을 맡아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다. 반면 레코드음악과 영화음악은 관련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던 탓인지, 내용의 현장성과 구체성이 부족했다. II부 역사 부문은 집필자들이 전문 연구자가 아닌 데다, 당시에는 자료 검증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오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III부와 IV부 인명록과 단체목록은 편집자 정월촌과 김광자가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4) 편찬 목적·방식과 편집체제

이 연감의 편찬 목적은 음악연감편찬위원회 대표 박태현이 서문에서 밝힌 바에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초유의 음악연감이라는 명제와 사명 때문에 이 일에 매달려 무

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했다. 66년도 음악연감이라는 하나 전날의 일들이 궁급해 요약한 음악 70년사를 곁했다. 그리고 최초의 음악연감이니만치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를 모아보았다. 한국 초유라는 역사적 의식을 느꼈지만 힘이 모자라기만 했다. 이를 발판으로 다음 음악연감은 정말 자랑할만한 것이 나와야겠다는 것을 통감한다.” (강조는 필자)

『음악연감』은 단순히 1965년도의 음악 활동을 집계하는 연보 차원을 넘어, 서양음악 도입 이후 한국음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시도라는 점에서 목적을 폭넓게 설정했다. 그러나 편찬자가 고백했듯이, 처음 시도되는 작업이어서 자료 수집이나 음악인들의 협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한 해의 현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과업인데, 이를 넘어서 70년의 긴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편집 방식은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음악연감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필을 담당했다. 음악 관계 인명록과 관련 단체 목록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광고면도 연분홍색 얇은 종이로 구분해 실었다. 그런데 연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일 텐데, 첫 시도여서인지 자료 검증이나 편집상의 최종 교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표기상의 통일성도 미진했고, 조판상의 오타도 많았다. 쪽수 체계도 일정하지 않아, I부는 내지를 제외하고 1부터 시작되지만, II~IV부는 3부터 매겨졌다. 음악연감의 제목에서 ‘樂’ 표기가 표제지에서는 樂(악자)로 쓰였고,²²⁾ 광고면의 쪽수 역시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었다.

지방악단 현황에서는 전라북도를 전라남도도 잘못 표기하여 전라남도도 두 번 등장했고(I-46쪽), 동아음악콩쿠르 제1회 수상자 명단에는 성악부가 피악부로 잘못 인쇄되었으며(I-49쪽), 대학졸업자 명단에는 ‘성악과’의 ‘성’이 누락되기도 했다(I-58쪽). 공보부 주최 민속예술경연대회 연차 표기도 1958

22) [그림 1]에서 보듯, 표제지의 한자 서체, 중앙의 그림, 하단의 출판사 표시는 1964년도 일본 『音樂年鑑』의 레이아웃과 거의 동일하다(自黑三策 編, 『音樂年鑑』, 東京: 音樂之友社, 1964 참조). 제목에 ‘樂’ 대신 악자 ‘樂’을 사용한 것도 일본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년 제1회, 1961년 제1회, 1962년 제3회로 혼란스럽게 기재되었고(I-52~53쪽),²³⁾ 8.15 이전 음악사 서술에서는 일본 성악가 야나기 가네코(柳兼子)의 이름이 柳秉子로 잘못 쓰였다(II-4쪽). 교정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편집상의 이런 오류들은 자료의 신뢰성을 일정 부분 저해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1960년대의 열악한 제작 여건, 한정된 자료 접근성, 인쇄 및 편집기술의 제약을 감안하면, 이러한 한계는 당시 시대적 조건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3. 주요 수록 내용 분석

1) 해방 20년에 돌아본 한국음악 70년사

한국 음악계에서 처음 시도된 연감이니만큼,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장이 따로 마련되었다. 신문 기사에는 1965년 연보이자 ‘음악 60년사’를 겸한다고 보도되었으나,²⁴⁾ 최종 출간본에는 ‘음악 70년사’로 나왔다. 10년 전인 1956년에 ‘음악 50년사’ 발간 기사가 있었고,²⁵⁾ 1968년에는 주요 일간지와 문예지들이 신문화 6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²⁶⁾ 보통 신문화 60년은 1908년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발표를 기점으로 삼지만, 『음악연감』에서 ‘음악 70년사’로 명명된 것은 양악계에서 그보다

23) 당시 기사를 확인해보면 1958년 제1회가 열렸고, 몇 년 만인 1961년에 다시 열리기 시작해 1962년에는 제2회로 불리다가 그 후로는 제3회로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1958년 제1회, 1961년 제2회, 1962년은 제3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4) “첫 『음악연감』 발간,” 『경향신문』 1965.8.18.

25) “음악오십년사 발간. 음악인명부도 수록,” 『경향신문』 1956.6.12. 최종 발간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26) 대표적으로 『신동아』는 1968년 6월호부터 ‘신문화 60년 기념 심포지움’ 특집을 연재하며, 매달 각 분야 전문가의 기고문과 좌담회를 실었고, 『공간』 역시 1968년 12월호에서 문학·음악·연극·영화·미술을 아우르는 신문화 60주년 특집을 마련했다. 『경향신문』도 문학·연극·미술·음악 분야의 30대 예술가를 모아 신문화 60년을 회고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른 1894년경 우리말 오선보 찬송가집 발간²⁷⁾을 서양음악 수용의 출발점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양악인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해방 이전 음악사를 집필한 김성태는 서양음악 유입을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때로 보았다. ‘1885년경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배재·이화 학당을 세워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²⁸⁾ 또한 대한제국 군악대보다 앞서 평양 숭실학교 군악대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김성태는 서양음악이 학교 교육에 편입된 시점을 ‘창가’ 교과목의 도입으로 보고, 1910년 이화여전에서 본격적인 음악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판단했다. 연주 활동 면에서는 1919년 경성악우회 조직부터 1944년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1920년 경성악대의 남량음악회, 1921년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조선학생음악무용회의 전국 순회공연, 1920년대 조선에 거주했던 외국인 음악가들과 당시 연주곡목 등 흥미로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서술에는 부정확한 부분이나 연도상의 오류가 적지 않다.

먼저, “1910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음악과를 두어 본격적인 음악교육이 실시”(II-3~4쪽)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화여전 음악과는 1925년 이화학당이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편될 때 만들어졌고, 1910년은 이화학당

27) 찬송가 117곡이 수록된 언더우드 편찬의 『찬양가』(예수성교회단, 1894)를 말한다. 관련 내용은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서울: 현유사, 2001), 24-26쪽 참조. 그런데 언더우드 찬송가집의 발간 연도가 김성태를 비롯한 당시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1893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28) 1968년 『한국양악팔십년사』를 발간한 이유선도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시작은 “개신교의 전교(傳敎)를 기점으로 하는 1880년대 초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유선, 『한국양악팔십년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국, 1968, 93쪽). 한국 양악사의 출발점은 대개 기독교 전파에 따른 찬송가 유입과 대한제국 군악대 창설을 기점으로 삼는데, 박용구는 전문 음악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군악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김성태·김원복·박용구·성경린·오현명·이상만, “신문화 60년 기념 심포지움 ⑥ 음악 [토론] 연주는 있어도 작곡이 없다.” 『신동아』 51 (1968/11), 342쪽.

이 고등과정인 대학과를 신설한 때다. 앞서 아펜젤러가 이화학당을 세웠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인데, 이화학당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메리 F. 스크랜턴이 1886년 5월 시작했고, 이듬해 고종이 ‘이화학당’이라는 명칭을 하사했다.²⁹⁾ 김성태의 주장은 이화학당 대학과에서 음악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당시 음악은 일반 교양과목으로만 채택되었고,³⁰⁾ 음악을 전공한 교원은 없었다고 한다.³¹⁾ 당시 이 『음악연감』이 널리 읽혔던지, 이후 ‘1910년 이화여전 음악과 설립’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를 양악사의 출발로 삼는 주장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2년 후인 1968년 이상만은 “1910년에 이화여자대학의 음악과가 창설”되었다고 썼고,³²⁾ 강석희도 신문화 60년 좌담회에서 “이화대학에 음악과가 창설된 1910년대로 신음악의 기원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했다.³³⁾ 이러한 사례는 김성태의 글이 상당한 공신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둘째,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주요 음악적 사건들의 연도 오류다. 한국 최초의 민간 음악 교육기관이라는 조양구락부와 조선정악전습소의 설립연도,³⁴⁾ 1919년 경성악우회의 창립연주회 일자(1월 13일 아닌 10월

29) 이화학당과 이화여전 역사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홈페이지의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1891년경 성악과 오르간 등을 비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오다가, 1910년 대학과가 설치되면서 일반교양의 형태로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위의 책, 171-172쪽.

31) 이화학당에 음악전문 선교사가 처음 온 것은 1912년이었고, 이화여전 음악과를 이끈 메리 영이 이화에 도착한 때는 1920년 1월이었다고 한다. 허지연, 『제국 속의 제국. 미국의 해외 선교와 한국의 음악교육』(서울: 민속원, 2019), 74-75쪽.

32) 이상만, “음악 60년의 문제들,” 『신동아』 51 (1968/11), 333쪽.

33) 강석희·김정옥·석도윤·최인훈·이철범, “[좌담]신문화 60년의 해를 보내며, 걸치레 행사 많았으나 반성과 전진의 새 계기,” 『경향신문』 1968.12.16.

34) 김성태는 “조선정악전습소가 1913년, 조양구락부가 1915년 설립되었다”(II-3쪽)고 썼지만, 조양구락부는 1909년 설립되었고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로 이름과 체제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서울: 보진재, 1974), 2장(41-78쪽) 참조.

13일),³⁵⁾ 현제명 제1회 독창회 날짜와 작곡집 출간 연도,³⁶⁾ 조선음악가 협회 창립년도(1932년 아닌 1931년),³⁷⁾ 한규동 귀국독창회 일자(1943년 아닌 1944년)³⁸⁾ 등. 일제강점기 기록들은 2000년대 나온 음악사에서 도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 음악회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 같은 1차 자료를 근거로 삼더라도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대개는 부정확한 선행연구에 기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60년 전의 기록이 갖는 불완전성을 감안하면, 『음악연감』에 나오는 연도와 날짜는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유추하기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정보들이라 참고할 만하다. 1910~20년대 음악 공연은 주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 강당에서 열렸다는 것,³⁹⁾ 경성악대 납량음악회의 활약상,⁴⁰⁾ 학생조직들의 연주회가 빈번했다는

35) 경성악우회는 흥난과가 일본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김형준·김영환 등과 함께 결성한 단체로, 1919년 10월 13일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첫 연주회를 열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성악우회 음악연주회, 천기 불량한 13일 밤에 대성황으로 연주를 끝내,” 『매일신보』 1919.10.15. 1월 13일은 10월 13일의 오타로 보인다.

36) 김성태는 현제명 제1회 독창회가 1929년 2월 27일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열렸다고 썼지만, 현제명이 미국에서 귀국한 시기가 8월이므로 2월 연주는 가능하지가 않다. 당시 기사들에는 1929년 9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고 나온다. 『작곡집 제1집』도 1931년이 아닌 1932년에 경성의 음악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현제명작곡집 (제1집),” 『동광』 32 (1932/4), 133쪽; 홍종인, “근간의 가곡집(3),” 『동아일보』 1932.8.12.

37) “악성인사총망라 음악가협회 창립. 협회 사업 제일 착수로 연 4회 정기연주,” 『조선일보』 1931.2.13; “滿都樂團을 열광케 한 조선악협연주회. 昨夜長谷川町公會堂에서,” 『동아일보』 1931.5.30.

38) 테너 한규동은 1944년 초 일본에서 귀국해 1944년 5월 30일 귀국독창회를 했다. “한규동 독창회. 내주일 부민관서,” 『매일신보』 1944.5.28.

39) 1910~20년대 YMCA에서 열렸던 음악회에 대해서는, 김은영, “1910~1920년대 YMCA 음악회에서 상상한 ‘민족,’” 『경성의 소리문화와 음악공간』(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2) 참조. 당시 내한했던 외국인 음악가들은 주로 일본인 지역인 소공동 하세가와초(長谷川町) 공회당에서 공연했다.

40) 이에 대해서는, 이수정, “경성악대의 음악활동 연구,” 『음악과 민족』 58 (2019), 70~77쪽 참조.

것, 주요하게 언급되는 독창회나 독주회 인물들, 당시 연주된 일부 레파토리, 해외 음악가들의 면면 등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의미 부여에서 드러나는 부정확한 기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전문학원으로 소개된 조양구락부(II-3쪽), 1925년 첫 음악잡지로 언급된 『음악계』(II-5쪽), 1940년 최초의 민간 심포니오케스트라로 기술된 ‘조선교향악단’(II-8쪽) 등, 이른바 ‘최초로’ 명명된 사례들은 보다 정확한 근거와 연구가 필요하다. 조양구락부나 조선음악전습소의 성격은 물론, ‘음악전문학원’을 어떤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도 가능해서다. ‘첫 음악잡지’의 경우, 1919년 2월 홍난파가 도쿄 유학 시절 조선유학생악우회 명의로 발간한 『삼광』을 간과할 수 없다. 음악·미술·문학 세 분야의 빛이 되겠다는 의미로 붙인 제호이지만, 분명히 음악잡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925년 『음악계』의 주간 역시 홍난파였음을 고려하면, 『삼광』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조선교향악단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 없으므로, 그 역사적 의미는 향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⁴¹⁾

이상만이 집필한 해방 이후 음악사는 교향악 운동·해군 정훈음악대·방송 교향악단·군정 하의 음악교육·합창운동·외국 음악가 내한·창작 활동·후

41) 조선교향악단의 결성과 활동은 1941년과 1944년 신문 기사에서 일부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1940년이 아닌 1941년 2월 10일 반도호텔에서 창립기념 모임을 열었고, 2월 25일부터 나흘간 부민관 대강당에서 매일신보 주최 ‘오케음악무용연구소 발표회’ 3-4부 무대에 섰다. 3부에서는 박경호 지휘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과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4부에서는 김성태 작곡 무용극 <홍부와 놀부>를 작곡가 지휘로 연주했다. 기사에는 35명의 단원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우리 악단의 성사. 조선 최초의 썸포니 오-케스트라 ‘조선교향악단’의 처녀 연주!,” 『매일신보』 1941.2.21.). 1941년 5월에도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국민총력연맹 주최 대규모 무용극 <부여 회상곡>에 찬조 출연했으며, 1944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념사업 일환으로 열린 ‘비행기 헌납 연주대회’에 참가했다(“朝鮮交響樂團 「夫餘回想曲」に贊助出演,” 『朝鮮新門』 1941.5.8; “조선교향악단 금일 공연. 비행기 헌납 연주대회 제2일 행사,” 『매일신보』 1944.9.18.). 이렇게 총독부나 관련 단체의 행사에 동원된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아, 조선교향악단을 ‘최초의 민간교향악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실내악)로 나누어 해방 후 20년의 활동을 정리했다. 여기서도 해군 정훈음악대의 조직 연도 1950년을 1951년으로 오기하거나,⁴²⁾ 해외 연주자 내한 기록에 연도 오류가 눈에 띈다.⁴³⁾

1965년 악계 현황을 다룬 1부 글에도 각 분야의 지난 역사를 간략히 요약한 경우가 많았다. 작곡 부문을 집필한 나운영은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상)』(1929) 이후 작품활동을 해온 37인의 작곡가(그중 3인은 일본에서 활동)를 호명하며, 1939년 동아일보 주최 “제1회 창작작품발표 대음악제”부터 1962년 제1회 서울국제음악제 ‘한국 작곡가의 밤’까지 주요 작곡 발표회를 소개했다. 전봉초는 해방 이후 20년간의 실내악 운동을 개관하며, 특히 피난지 부산에서 결성된 ‘실험악회’의 활동에 주목했다. 관악 부문을 집필한 남궁요열은 개화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군악대 역사를 상세히 서술하고, 1917년 평양 숭실학교에서 시작된 학교 악대의 전개도 간략히 짚었다. 출판 부문을 맡은 최영환은 창간호가 곧 중간호가 되곤 했던 열악한 여건 속에서 명멸한 음악 월간지의 역사를 되짚고, 대표적인 악보·악서·음악 교양서의 역사를 정리했다. 장사훈은 서양음악 유입으로 멸시와 냉대를 받아온 국악의 역사를 해방 이전 정악원·아악부·창극계, 해방 직후, 국립국악원의 탄생과 국악교육기관의 변화 등으로 나눠 상세히 기술했다. 손목인은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레코드회사와 악극단의 활동 중심으로 조명하며,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을 만들었던 이철을 대중음악의 창설자로 평가했다. 아동 음악 부문을

42) 9.28 수복 이후 흩어졌던 음악인들이 모여 조직했고, 해군창설 5주년 기념으로 시공관에서 수도탈환 공연을 했다고 하면서 연도를 1951년으로 잘못 썼다(II-13쪽). 해군은 1945년 결성되었고, 해군창설 5주년을 겸한 해군 정훈음악대의 창립연주회는 1950년 11월 11~13일에 있었다. 해군본부 정훈감실 편,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정훈 50년사』(서울: 대한민국 해군, 1999), 74쪽; 한규동, “해군정훈음악대 약사,” 『정훈음악』 1-8 (1954/11), 21-23, 28쪽.

43) 로스엔젤레스 교향악단과 피아티고르스키 내한은 1957년이 아니라 1956년이며, 마리안 앤더슨은 1958년이 아닌 1957년, 리틀 오케스트라는 1958년이 아닌 1959년에 내한했다. 이들 공연은 모두 미 국무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내 신문 기사뿐 아니라 ‘미 국무부 후원 음악·연극 공연 데이터베이스’(https://musicdiplomacy.org/database.html)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말은 손대업은 한민족의 국민가요 구실을 했던 동요가 해방 후 20년간 아동 음악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창작·연주(합창)·연주(합주)·콩쿠르·아동 종합단체(어린이음악원 등)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했다.

2) 1965년 음악계 동향

1965년은 해방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다. 총론을 집필한 박태현은 이 해에 비교적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진단하며, 먼저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한국 음악가들을 주목했다. 윤이상의 단막 오페라 <류통의 꿈>의 베를린 초연, 우종갑의 관현악곡 <가람(伽藍)>의 도쿄방송국(TBS) 작곡상 수상, 황병기의 호놀룰루 금세기 음악예술제 초청연주, 한동일과 이청의 국제콩쿠르 입상을 기려야 할 성과로 꼽았다. 서울시향의 도쿄공연이 첫 국제무대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고, 영필하모닉의 발족으로 서울에 세 개 교향악단이 활동하게 된 것, 부산시향과 대구시향의 정기연주, 중앙여중 관현악단 등 학원 관현악단의 활동도 교향악 진전의 징표로 주목했다. 전봉초·이인범·이상춘·안병소·정희석·김동진 등 중견 연주자들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고, 국립오페라단 외 민간 오페라단 무대의 경제적 성공 가능성과 1965년 12월 창간된 『음악생활』에 기대를 걸었다.⁴⁴⁾ 반면, 3회까지 진행되었던 서울국제음악제가 1965년 중단된 점, 양분되었던 음악 조직의 통합으로 기대가 컸던 한국음협이 제구실을 못 하는 현실, 국내 유일의 일반 음악콩쿠르인 동아음악콩쿠르가 학생콩쿠르로 전략해 버린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었다.

부문별 집필에는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지, 1965년 음악계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이 주목할 만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은 드물었

44) 해방 이후 발간되었던 음악 월간지들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 1월 창간된 『음악문화』(편집인 최영환)는 1961년 12월호까지 이어졌지만, 1964년 4월 수도피아노사(발행인 박중규)에서 만든 『음악세계』나 1965년 12월 국민음악연구회가 창간한 『음악생활』(발행인 이강렴)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다.

다. 박용구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음악평론이 존재하는지 반문하며, ‘음악평론 동인회’가 결성되었으나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고, 경향(김형주)·조선(이성삼)·대한(남상국)·동아(이상만)·한국(박용구) 신문에 음악평론을 담당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안익태 서거 후 각 신문이 지나치게 이상화된 보도를 내보냈으나, 이상만과 박용구 자신이 역사적 평가를 시도해 정당한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 시도야말로 음악평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임을 강조했다.

교향악계를 다룬 김형주는 1965년에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서울시교향악단의 일본 연주, 보스턴 팝스 지휘자 아서 피들리의 KBS교향악단 지휘, 영필하모니의 창립을 꼽았다. 외국 지휘자의 내한이 드물던 상황에서 미국 뉴올리언즈 교향악단 부지휘자 원경수의 국내 데뷔, 서울시교향악단 부지휘자 김선주와 국립오페라단의 정재동 등장이 주목할 만했으며, KBS교향악단의 시벨리우스 탄생 100주년 기념연주회와 ‘한미현대음악의 밤’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울시향의 지방 순회공연이 지역 악단에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새롭게 창단된 ‘영필하모니’의 활동에 기대를 표했다. 다만 확고한 재정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운영난을 극복할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1960년대 중반에도 교향악계는 여전히 ‘교향악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질적 향상을 위한 외국 지휘자 초청·기술연마·재정확보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실내악계(전봉초)는 ‘황무지를 걷는 양 적막한 감’이라 표현할 만큼 활동이 빈약했던 데 반해, 합창(이유선)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과가 많았던 한 해’로 평가되었다. 특히 선명회합창단의 세 번째 해외공연을 포함해 어린이합창운동이 활발했고, 일반인 직장 대향 합창경연도 열렸으며, 전문합창단(서울합창단·시운성합창단·한국남성합창단·한국오라토리오합창단 등)의 연구 발표회, 영락교회 성가대와 교회 연합성가대의 수난곡과 <메시아> 연주도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작곡 부문을 집필한 나운영은 신작이 발표된 12회 음악회를 나열하면서,⁴⁵⁾ 재독(윤이상)·재일(우종갑) 작곡가의 작품 호평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썼고, 연주계를 담당한 이성삼은 피아노·성악·현악 부문으로 나눠 한 해에 있었던 연주회를 날짜순으로 연주목록까지 정리했다. 남궁 요열은 관악계의 현황을 조목 별로 상세히 전했다. 학교관악대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아 답보상태여서 타개책이 요망되며, 1965년부터 동아음악콩쿠르의 관악부 신설, 한국일보사 주최 제1회 전국중고등학교 관악경연대회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또한 서울브라스앙상블의 창립공연과 코리아목관오중주단의 제5회 공연 및 군악대(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과 미8군)의 활동도 상세히 전했다. 그간의 음악사에서 주목되지 못한 당시 관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다.

반면, 교육음악(박찬석)과 오페라(이유선) 부문은 1965년에 어떤 활동이 중요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음악교육의 제도·시설·교사의 자질·내용 같은 원론적인 주장이 주를 이루거나, 오페라의 과거 역사만 훑고 지나간 터라, 정작 지난 한 해의 상황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⁴⁶⁾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한 아동음악(손대업)은 과거의 발자취와 더불어 1965년의 활동이 정리되었으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로 인해 핵심적인 이슈 파악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금수현이 맡은 레코드음악과 영화음악 분야는 당시 산업 현황을 간략하게 파악하고 영화음악 작곡가의 이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사훈이 집필한 1965년 국악계는 연주와 행사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종묘악>과 판소리 <춘향가>의 문교부 무형문화재

45) 연세대학교 졸업작품 발표회와 동아콩쿠르 입상자 발표회부터 안일웅·김옥영(대학원생) 작곡 발표회, 서울시향과 KBS의 정기연주회, 세계문화자유회의 한국본부 주최 “현대음악발표회”에서 연주된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다. 날짜나 장소 정보는 없다.

46) 1965년 오페라계에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적지 않았다. 국립오페라단은 1965년 5월 푸치니 <라 보엠> 공연에 이어, 11월에는 수년간 몇 차례 시도되었다 무산된 베르디 <아이디>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렸다. 한편, 민간단체인 고려오페라단은 11월 초 현제명의 오페라 <춘향전>을 김희조 편곡과 이해랑 연출로 재공연했으며, 연세대 음대는 대학창립 80주년을 맞아 베르디 <운명의 힘>을 국내 초연했다.

지정, 황병기의 하와이 금세기 음악예술제 참가, 가야금 독주회의 성과, 박연 500주기 맞은 영동 난계추모예술제 시작, 국립국악원의 국악 보급 활동(무료 강습회·외국인 대상 국악연주·대학 국악기 실기 과외 활동 지도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신국악 작품발표회나 한국국악학회의 연구 세미나 활동은 예년처럼 꾸준히 이어졌으나, 방송에서는 여전히 냉대를 받아 KBS와 기독교 방송(KY)을 제외하면 국악프로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국가시책으로 시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1965년은 해방 20년이 되던 해였기에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신문 기사들이 많았다. 연초에 『경향신문』은 “국민음악의 지표”라는 특집 기사를 마련해 국내 창작 음악의 현황을 심도있게 다뤘다.⁴⁷⁾ 서울시향과 KBS향이 연주한 국내 작곡가의 작품을 정리했고(시향 13곡, KBS향 6곡),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려 애쓴 작곡가들의 시도도 작곡가별(김성태·구두회·정윤주 등)로 상세히 소개했다. 오페라 분야의 새로운 시도들(김동진의 <심청전>·김달성의 TV 오페라·최영섭의 국악 음률 오페라 <운림지>)도 언급되었는데, 『음악연감』(1966)에서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1965년은 ‘오페라의 해’로 불릴 만큼 국립오페라단의 두 차례 공연, <라 보엠>과 <아이다> 무대가 흑자를 기록해 오페라 저변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주목을 받았지만,⁴⁸⁾ 이런 성과나 의미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

해방 20년의 성장 속에서 한국 음악계의 현주소를 진단한 김진찬 기자는, 1965년의 음악계를 “이제 겨우 정지 작업을 끝낸 상태”로 평가했다. 한국 음

47) “민족음악의 지표. 국제무대서의 위치. 심혈 기울이는 국내 창작. 겨레의 새 핏줄기 오선지에 새겨.” 『경향신문』 1965.1.27.

48) “20년 만의 흑자공연. ‘오페라의 해’를 빛낸 프리마돈나.” 『조선일보』 1965.11.14. 물론 제작비(출연료 포함)가 적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출연자들은 버스비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게 당시 상황이었다. 김자경·오현명·윤길구·최영환. “[좌담] 오페라운동의 금후. 아이다 공연을 마치고. 관객의 질·양 모두 향상. 흑자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 『동아일보』 1965.11.13.

악계가 과거의 의지와 기백이 약화된 가운데, 여전히 19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현대성이 밀려난 현실을 지적했다. 교향악과 오페라 청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교육자적 자질을 갖춘 지휘자의 존재가 필요하며,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음악가들이 우리 악단의 희망이라고 보았다.⁴⁹⁾ 같은 해 연말에 나온 또 다른 기사에서는 윤이상·한동일·안익태의 사진을 싣고 해외에서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으며, 흑자를 낸 오페라 공연을 한 해의 큰 수확으로 언급했다.⁵⁰⁾ 한편, 애국가 작곡자인 안익태의 서거는 국가적으로 추모되었지만, 같은 해 7월 마흔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작곡가 윤용하의 부고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의 대표곡 <보리밭>은 1970년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당시 그는 가난 속에서 생을 마쳤고, 멀리 부산 음악인들이 그의 유작 발표회를 추진했을 뿐이었다.⁵¹⁾

『음악연감』(1966)에서 정리한 1965년의 악단 동향은 평면적으로 행사들을 단순 나열한 경우가 많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음악계가 중요하게 여긴 지점을 읽어낼 수는 있다. 외국 연주자들의 내한이 예년에 비해 적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보아, 국내 음악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까지 해외음악가들이 악단의 중요한 자극제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부 마지막에 정리된 ‘1965년의 연주·발표회 기록’에서는 비록 서울 중심이긴 하나, 당시 음악회가 언제·어디에서 주로 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월별로는 6월(17회), 10월(19회), 11월(24회), 12월(19회)에 공연이 많았으며, 총 131회⁵²⁾ 공연 가운데 명동 국립극장

49) 김진찬 기자, “해방 20년 그 성장을 본다 (음악). 이제 겨우 끝낸 정지작업. 현대가 밀려난 우리 악단. 청소년에 희망, 교육자적 지휘자 아쉽고,” 『경향신문』 1965.6.28.

50) “문화계 1965. 음악. 해외에서 떨친 정진 공적. 안익태씨 별세. 부진에 허덕인 창작 활동. 흑자 낸 오페라 공연은 큰 수확,” 『동아일보』 1965.12.27.

51) “유품이라곤 파커 만년필. 작곡가 윤용하씨,” 『조선일보』 1965.7.29; “윤용하 유작 발표회 부산음악인들 추진,” 『동아일보』 1965.8.5.

52) 일주일 이상 공연된 오페라와 2~3회차로 진행된 공연과 콩쿠르 연주회를 1회로 산정

(현 명동예술극장)과 세종로 시민회관⁵³⁾에서 각각 67회, 44회 열렸다. 그 밖에 서울음대 홀, YWCA 강당, 소공동 중앙공보관 등에서도 연주회와 연구발표회가 있었고, 덕수궁에서는 시민 위안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합창 공연과 학교 오케스트라 연주의 비중이 오늘날보다 훨씬 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대 음대 실내합주단으로 시작한 ‘바로크합주단’(현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의 창단은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6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출발로 평가된다.⁵⁴⁾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역시 국악관현악단 60년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한동일의 레벤트리콩쿠르 우승과 윤이상의 오라토리오 및 오페라 초연이 이어진 1965년은, 이후 세대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25년, 세계 음악계에서 한국음악의 위상이 이처럼 높아질 줄을 당시의 악단은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3) 음악 기관·단체와 음악인 목록

연감에서 음악 기관·단체와 음악인 목록은 핵심 구성요소다. 연감의 목적이 한 해의 음악계 동향을 데이터화하고 인적·조직적 기반을 기록하는 데 있

한 것이어서 실제 공연 횟수는 150회 정도 된다.

53) 1961년 11월 7일 개관한 시민회관은 서울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3,000여 석 규모의 대강당에서는 음악회와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1972년 화재로 소실된 후 그 자리에 새로 건립된 것이 현재의 세종문화회관이다.

54) 1965년 6월 첼리스트 전봉초가 서울대 음대 내 실내악 연구발표회를 통해 결성한 ‘바로크합주단’은 이듬해 10월 국립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뒤 약 10년간 한국의 대표 실내악 상블로 활동했다. 1970년대 중반 잠정 휴지기를 가졌으나 1980년 김민 음악감독 체제로 재편되며 국제무대 진출을 시작했고, 2015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명칭을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KCO)’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아카데미를 통한 후학 양성과 함께 현대음악 시리즈 ‘KCO 모더니즘’을 진행 중이다. 공식 웹사이트(<https://kco.or.kr/>) 참조.

으므로, 국공립·민간·협회·교육기관 등 각종 음악 기관과 공연단체의 연간 활동이 포괄적으로 수록된다. 『음악연감』(1966)에서도 음악인과 음악 관계기관 목록이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졌다. 기관과 단체의 활동이 상세히 기술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명단과 대표 활동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인 목록에는 전국적으로 약 900명이 망라되어 있으며, 작고 음악인과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까지 포함되었다.

음악 관계기관에는 ‘음악대학·학원’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는데, 11개 음악대학/음악과의 주소·전화번호·학장/학과장 이름이 정리되어 있다. 이어 서울예술고등학교와 동양음악학원·삼흥음악학원⁵⁵⁾ 국립국악원과 국악예술학교, 다음으로 박초월국악원·한국국악연구소·한국정악연구소·한국정악원 등 사설 학원들이 이어진다. 당시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음악 교육기관이 부재했기에, 이러한 사설 학원들이 사실상 정규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나오는 18개의 무용연구소와 무용학원 목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5개 ‘연주단체’ 명단에는 서울시향·KBS교향악단·영필하모니·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부산시향과 대구시향 등 지역 오케스트라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려오페라단·국제오페라단·프리마오페라연구소 등 오페라 단체, 노이마 피아노3중주단·서울브라스앙상블·코리어목관오중주단·한국현악사중주단 등 실내악단의 주소·연락처·대표자·주요 인물·창단 일자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합창단에는 대구방송합창단·목포오라토리오합창단·삼천포밀알합창단·서울합창단·소년조선일보합창단·온양샘음악회·전원합창단·한국벨칸토회 등 전국 각지의 단체가 망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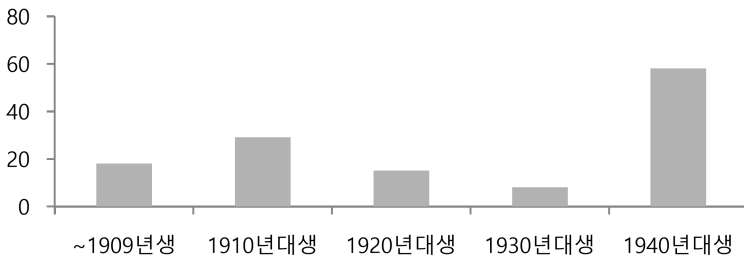
55) 1954년 개원한 삼흥음악학원(원장 백창성)은 전쟁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어린이 음악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음악연감』의 ‘아동음악’ 부문에서도 대표단체로 가장 먼저 언급될 만큼 여러 음악가를 배출했으며, 국내 최초로 어린이 여름 음악학교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전공 과정으로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가 개설되어 있었다(廣67쪽). 반면 동양음악학원(원장 이강림)은 설립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광고에 따르면 대학 입시반과 유학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었다(廣41쪽).

‘관계단체’ 항목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평론동인회·한국음악협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음악교육 관련 기관이 수록되었다. 한국음악교육연구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교육연구회 및 연합회 13개 명단이 주로 지역의 음악 교사·장학사·작곡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인다. 108개에 이르는 ‘관계업계’는 지역별로 주요 악기점·레코드 제작회사·레코드 판매점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고, 음악 출판사와 판매소 6곳도 포함되었다. 1960년대 중반 악기 판매가 음악산업의 중심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음악연감』(1966)에 실린 음악인 목록은 당시 음악계의 구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생일과 주소, 학력과 경력, 소속과 사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것이어서 일정 부분 신뢰할 만 하지만, 동시에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물들의 자기소개를 통해 당시 음악인들의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다.

먼저 ‘국악관계인명록’에는 1896년생 황일백(농악)부터 1940년대생 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까지 총 128명이 수록되어 있다. 출생 연도별로 보면 1909년생까지가 19명, 1910년대생 29명, 1920년대생 15명, 1930년대생 8명, 1940년대생 58명이다.⁵⁶⁾ 1936년 이후 출생한 20대가 절반 가까운 63명

56) 국악관계인명록에 포함된 128명을 출생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1940년대생 58명 중 36명은 서울대 음대 국악과 출신이며, 21명은 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다. 이들이 당시 국악계의 주류였다기보다, 단체 소속으로 인명록에 집단적으로 이름을 올렸기에 비중이 커 보이는 것이다.



에 육박한 반면, 30대(1926~1935년생)는 안비취·정권진·성우향·김여란 등 여섯 명에 불과하다. 이로 보아 해당 인명록이 국악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출신 지역은 한반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전공별로는 가야금이 31명으로 가장 많고(거문고 11명, 해금 5명),⁵⁷⁾ 대금·피리·관악이라 표기한 경우가 19명이다. 민요(경서도)는 16명, 창악/판소리는 13명이며, 가곡/가사/시조·타악·농악도 각각 2~4명씩 있다. 공후와 비파 연주자도 한두 명씩 있는 데 반해, 아쟁 연주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이 인명록이 국악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이론 전공자가 17명에 이른 것은 당시 서울대 음대에 국악과가 신설되며 대학교육을 받은 인물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이론 전공자들이 이런 조사 응답에 상대적으로 익숙해 과표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굿 음악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도 당시 시대상을 보여준다.⁵⁸⁾

김소희·박귀희·박초월·성우향 등이 전공을 ‘창악’이라 쓴 데 반해, 김연수는 ‘판소리’, 정권진은 ‘남도창’이라 표기한 점이 흥미롭다. 이 여성 명창들은 판소리에 국한되지 않고 창극과 병창 등 다양한 성악 장르를 섭렵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영희가 해금이 아닌 ‘관악’이라 쓴 부분에서도 당시 그가 어느 악기에 더 주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62년 ‘신국악 작품 공모’가 시작된 이후임에도 인명록에 ‘작곡’이 보이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신국악 작곡가 이강덕·이상규·이성천 역시 자신의 전공을 각각 필률(피리)·대금·이론으로 기재했다.⁵⁹⁾ 이는 1960년대 중반까지 국악

57) 가야금 연주자가 특히 많은 이유도, 20대 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단체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성금연과 황병기에게 사사한 인물이 많다는 건, 이들이 국악예술학교와 서울대 음대 국악과를 통해 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58) 1960년대 국악계는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되었으며, 무속음악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진도 씻김굿·황해도 굿·남해안 별신굿 등 무속음악은 1980년대 들어서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국악의 한 갈래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했다.

계에서 아직 ‘작곡’이 독립된 전문 분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국악인들의 교육 배경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00년대생까지는 도제식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아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한학 또는 소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었다.⁶⁰⁾ 1910~1920년대생의 경우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이 눈에 띄나, 여전히 한학·소학교·중학교 졸업이 많았다. 1930년대생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해방과 분단, 전쟁을 거치며 교육 여건이 어려웠던 탓에 그 수가 많지 않다. 반면 1940년대생의 경우 서울대 음대 졸업자가 3/5을 차지하는데,⁶¹⁾ 제도권 교육체계가 정비되면서 국악계가 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소속 기관으로는 국립국악원(국악사양성소포함)·국악예술학교·시립국악관현악단이 두드러지며, 전국의 사설 국악원과 국극협회, 고등학교 및 대학도 눈에 띈다. 당시 국악계의 주요 주체들이 어느 영역에 포진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⁶²⁾

‘양악관계인명록’에는 훨씬 많은 음악가가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고, 총 638명 중 절반 이상인 346명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누락된 인물들이 많아 이 명단이 당시 음악계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⁶³⁾

59) 이성천의 경우 양악관계인명록에는 ‘작곡’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60) 1906년생 박헌봉(민속악)이 중등고, 1909년생 김천홍(궁중아악)이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이해구(국악학)가 경성제대 영문과를 졸업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다.

61) 1959년 서울대 음대에 국악과가 설립되면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생까지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연감의 전체 국악인 128명 가운데 이들이 39명으로 30%가 넘는다.

62) 1960년대 급격히 쇠퇴했다고는 하나, 195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수많은 여성 국극단의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제도권 국악계와는 별개의 영역에서 활동했음을 시사한다.

63) 초창기 양악계의 대표적 인물인 김영환(1893-1978), 경남 지역에서 활약했던 제갈삼(1925-)과 김국진(1930-2020)도 누락됐다. 1930년대생의 경우 문두훈(1931, 당시 부산시향 트롬본 단원)·김정길(1933, 당시 이화여중 교사)·박동옥(1935, 당시 아리랑민속예술단원으로 미국순회 연주)·이강숙(1936, 당시 계명대 피아노 전공 조교수) 등도 빠져 있고, 1938년생 공석준(작곡)·니영수(합창지휘)·박인수(테너)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케스트라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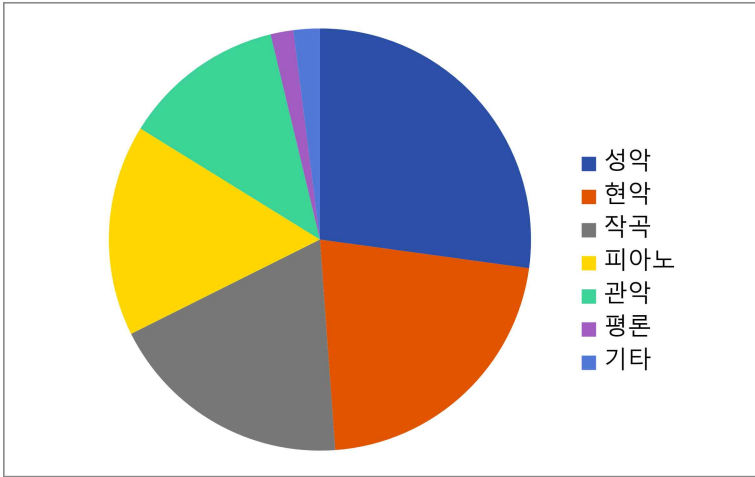
악단 구성원의 대략적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유의미한 자료다. 서울 지역에 국한하면, 연령별로는 1900년생부터 1947년생까지 20대에서 60대를 포괄하며,⁶⁴⁾ 전공별로는 성악이 가장 많고(94명), 이어 현악(75명), 작곡(65명), 피아노(56명), 관악(43명)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 지역 전공별 분포도를 보여주는 [표 2]에서 ‘기타’에는 타악·오르간·음악교육·합창지휘 등이 포함되어 있다.⁶⁵⁾

원이었던 20대의 김민(1942)은 명단에 있지만, 함께 활동한 나덕성(1941)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명단에는 미국인 두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1960년부터 한국에 체류한 작곡가 제임스 웨이드의 경우는 이해할 수 있으나, 1961~63년 교환교수로 머물렀던 미국인 지휘자 데이비드 샤피로의 부인 매들린 샤피로(성악)가 포함된 것은 이해적이다. 이는 그녀가 1965년 말 한국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 아리아의 밤’ 무대에 출연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64) 생년이 표시되지 않은 10명을 제외하면, 연령별로 1909년생까지 12명, 1910년대생 57명, 1920년대생 108명, 1930년대생 123명, 1940년대생 36명으로, 1920~30년대생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1920~30년대생 비중이 현저히 적었던 국악관계인명록과 비교해보면, 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해방 이후 서양음악이 급속히 제도화되며 악단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65) 지휘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악기 전공으로 분류했다(예를 들어, 서울시향 김만복은 바이올린, KBS교향악단 임원식은 피아노로). 당시 여섯 개 오케스트라가 활동했으나 인명록에 전공을 ‘지휘’로 기재한 인물은 김만복이 유일했고, 다른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전공 악기를 함께 표시했다. 이는 음악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연주자 겸 작곡가들 가운데도 김동진은 ‘작곡/바이올린’이라 적었지만, 이호섭과 이흥렬은 ‘피아노’만 기입해, 작곡가로서보다는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2] 1960년대 중반 서울 지역 악단의 전공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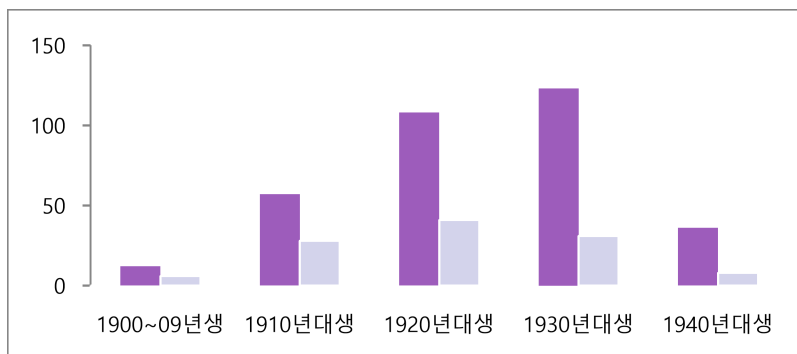


195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 음악계가 휴전선 이남 출신들로만 구성되지만, 1960년대만 해도 여전히 평안도·함경도·황해도 등 한반도 전역 출신 음악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 음악가들의 출생지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이 9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북을 고향으로 둔 이들도 1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900년대생 12명 중 6명, 1910년대생 57명 중 2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1920년대생은 108명 중 41명으로, 1930년대생은 123명 중 31명, 1940년대생은 36명 중 8명으로 점차 감소한다. 1950년대생 가운데는 38선 이북 지역 출신이 거의 없다.⁶⁶⁾ 그 추세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⁷⁾

66) 지역별로 이북 출신 음악가의 비율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약 25%, 경상남도가 약 12%이며, 그 밖의 지역은 5% 이하로 낮다. 경기·강원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리적 인접성이 이유일 것이고(특히 인천에는 황해도 출신이 두드러진다), 부산·경남은 전쟁기 피난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충북과 전북에는 만주나 중국 태생 인물이 한 명씩 있는 반면, 경북에는 단 한 명도 올라있지 않다. 재외음악인 명단에도 출신지를 밝힌 25명 가운데 9명이 이북 출신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67) [표 3]은 서울 지역 음악가들의 연령대별 출신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좌측 막대는 서울 지

[표 3] 1960년대 중반 서울 지역 음악가의 이복 출신 비율



인명록에 올라있는 음악인들의 상세 정보(출신 지역·학교·소속·관련 기관·사사 인물 등)는 192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서양음악 교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가늠하게 하며, 1960년대 한국 음악계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이화여전 외에 고등 음악교육 기관이 없어 1920년대생까지는 주로 일본에서 공부했다면,⁶⁸⁾ 1930년대생 이후로는 국내 대학졸업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대·경희대·서라벌예대·연대·이대·숙대·한양대 등 국내 음대나 음악과 졸업생들이 많고, 해군·육군 군악학교나 평양음악학교 출신도 눈에 띈다. 지역에는 부산사대·광주사대 등 사범대 음악과 졸업자들이 많으며, 서울대 음대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출신들도 적지 않다.⁶⁹⁾ 드물긴 하나 경성음악전문학

역 전체 음악가 수, 우측 막대는 이복 출신 음악가 수이다.

68) 관립 도쿄음악학교(현 동경예대)보다는 사설 학교인 도쿄고등음악학원(구니다치)과 니혼고등(일명 中野)·데이코쿠(帝國)·도요(東洋)·무사시노(武蔵野)·주오(中央) 음악학교 등이 주로 등장한다.

69) '서울음대 中教' 출신으로 기록된 인물은 9명이다. 이 중등교원양성소는 1953년 전후의 심각한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년제로 설치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상당수 졸업생이 전국 중고교 음악 교사로 활동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졸업생 다수가 교원으로 진출하기보다 음대로 편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결국 1959년 제5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1946~1996』, 서울: 서울대학교 음

원·만주 신경음악원·북경음악학교 등지에서 교육받은 경우도 있다. 다른 분야를 전공한 후 음악가의 길을 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인선과 정진우처럼 의학을 공부한 인물뿐 아니라, 약학·법학·철학·경영학·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음악가로 전향해 오페라 무대에 서거나 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음악인의 주요 직군으로는 중등학교 교사, 오케스트라 단원, 대학교수의 비중이 크다. 당시 음악대학 졸업생들에게는 교사직이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었다.⁷⁰⁾ 단원이라 하더라도 대학 강의나 개인 레슨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미 이 시기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악단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 외에도 1965년에는 영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고, 부산시향과 대구시향 등이 결성된 후여서, 이들 단체 소속 인물들이 인명록에 대거 수록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방송국 소속 음악 담당자나 음악산업 종사자(악기사·출판사·레코드사 등), 평론가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직업란에 개인 교습이나 음악학원 운영을 기재한 경우는 소수였지만, 직장을 명기하지 않은 이들 다수는 레슨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 음악가 목록에는 중등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특히 음악대학이나 지역 교향악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음악 교사였고, 그 밖에도 개인 교습과 학원 운영 등 교육계 종사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성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외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다. 여성들은 대학 졸업 후 음악

악대학, 1997, 13쪽). 그밖에 '서울음악(전문)학교' '서울음악전문' 등의 표기도 간혹 등장하는데, 1922~23년생들의 경우 해방 직후 현재명이 설립한 '경성음악전문학교'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실체는 확인이 필요하다.

70) 이후 유학을 다녀와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되더라도, 졸업 후 가장 안정적인 진로는 음악 교사였다.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강석희·김봉임·김정길·박수길·백병동 등도 모두 중등학교 교직에 몸담고 있었다.

활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고, 당시 사회적 여건상 공적인 영역보다는 개인 교습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 표기는 출신 대학 지도교수를 명기한 경우가 많은데, 월북 음악인 가운데 해방기 서울대 예대 음악부에 재직했던 김형로(베이스)·문학준(바이올린)·이인형(피아노)과 이유성(트롬본), 평양음악학교에서 가르친 김순남, 해방기 활발하게 활동하다 일본으로 건너간 후 잊힌 임동혁의 이름도 확인된다. 외국인 스승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평양 숭실학교에서 가르쳤던 드와이트 말스베리(D. Malsbury)이며, 일본에 체류했던 러시아 현악 주자 알렉산드르 모기레프스키(A. Mogilyevsky)와 콘스탄틴 샤피로(C. Shapiro), 하얼빈에서 활동한 블라디미르 트라흐텐베르크(V. Trachtenberg)의 이름도 보인다. 일본인 스승으로는 성악가 히라마 분쥬(平間文壽)와 하라 노부코(原信子), 바이올리니스트 스즈키 신이치(鈴木鎮一)가 여러 차례 언급되며, 후지와라(藤原義江) 가극단 활동을 경력에 기재한 성악가들도 있다.

양악 중심으로 편찬된 연감이어서 ‘무용관계인명록’이나 ‘대중음악관계인명록’은 부실한 편이다. 특히 대중음악 분야는 일부 저명 작곡가를 제외하면 방송국 소속 인물이나 개인 악단 운영자들이 대부분이다. ‘재외음악관계인명록’ 또한 1965년 당시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에 체류 중인 음악가들의 극히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재일 음악인의 경우는 1963년 예총이 동경지부 설치를 추진하며 6개 산하단체 결성을 시도했을 때 형성된 연락망을 통해 참여가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고 음악인’ 57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강태홍·김계선·신재효·이동백·이화중선·임방울·정정렬·하규일 등 국악인이다. 1960년대 국악인명록의 규모가 양악의 약 2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세기 전반기에는 국악인의 활동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판소리 창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왕직악부 소속 악사들인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기록이 남은 유일한 공식 기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양악인 31명에는 백우용·정사인·이상준·김인식·김형준·홍난파·윤심덕·채동선·김재훈·이인선·안익태·김관 등 주

요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구한말 군악대 및 일제강점기 활동 음악인의 정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제국 군악대를 지도했던 프란츠 에케르트 또한 이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 양악인 20명의 사진은 당시 인물 식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생몰연대 등 오류가 적지 않으므로(특히 국악인 항목에서) 교차 검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고 음악인의 출신 지역 분포가 흥미롭다. 국악인은 서울·전남·충남 등지에 고루 분포한 반면, 양악인은 평양 출신이 서울보다 많고 평안도·황해도·함경도 태생이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초기 서양 음악가들 가운데 평양과 평안도 출신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이 조선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4) 광고로 본 1960년대 중반 음악문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근대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제도적 틀과 주체가 형성된 시기였다. 음악 분야 역시 독자적인 생태계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음악연감』에 실린 광고는 그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당시 음악계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음악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제도화되어 있었는지를 가능하게 한다. 광고의 목차 구성(악기 제작소 및 판매점, 악보 출판사 및 판매점, 음악대학·학원 연구소, 연주단체·협회, 레코드, 음악·무용회장, 관계업체·기타)을 보면, 악기 제작 판매와 음악교육 기관의 비중이 큰 데 비해, 공연기획이나 매니지먼트 같은 중간 매개자 항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계가 아직 음악 산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음악교육 시장의 성장 또한 1960년대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중산층의 등장과 맞물려 있었다. 음악교육은 교양과 근대화의 상징으로 작용했으며, 한동일 이후 김영욱·정경화·강동석 등의 초기 미국 유학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교육열을 자극했다. 악보출판 역시 교육용 교재(어린이 바이엘

· 체르니·가창 교본 등)에 집중된 점으로 보아, 이러한 교육 시장 확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 교육기관이 정규 고등교육부터 사설 교습서까지 같은 범주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공식 제도권과 비공식 교육 시장이 혼재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삼흥음악학원처럼 대규모 학원뿐 아니라 ‘000 피아노 교실’ 같은 개인 교습소까지 광고에 등장하는데, 당시 음악 레슨 시장이 상당히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명록에서 개인 교습을 직업으로 기재한 음악인이 적지 않았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대학 광고 비교도 흥미롭다. 서울대 음대와 수도여사대 음악과는 건물 사진과 학장(과장)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만 제시한 반면, 경희대 음대·서라벌예대 음악과·성심여대 음악과는 학교 전경 사진과 전공 안내를 함께 실었다. 연세대 음대는 전공별로 이수 과목을 상세히 소개했고, 이화여대 음대와 계명대·조선대 음악과는 전공별 교수진과 강사진 명단까지 수록했다. 숙명여대 음대는 학생들의 연주 무대 사진과 함께 연례 주요 행사를 홍보한 데 비해, 한양대 음대와 효성여대 음악과는 학장 이름과 주소만 기재해 형식적인 인상을 준다. 특히 돋보이는 광고는 국악예술학교였는데, 학생들의 연주 사진을 배경으로 교육목적과 연혁, 수업연한·입학자격·부설기관·특전·중요행사·교수진용까지 상세히 소개하며 학생 유치에 공을 들였다.⁷¹⁾

한편, 명곡해설 전집이나 연령대별 애창곡집, 음악 교양서의 등장은 당시 음악애호가층의 확산을 짐작하게 한다. 광고 지면의 주요 위치인 내지에 월간 『음악생활』, 국민음악연구회의 『세계음악대전집』, 『세계명곡해설대사전』, 『세계음악사』 등의 서적 광고가 실려, 음악 교양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클래식 음악감상실로 유명했던 종로의 ‘르네상스’

71) 당시 국악예술학교 교수진은 교장 박현봉을 비롯해 박귀희·유기룡·지영희·박복주·김연수·박초월·김소희·정권진·신패동·성금연·김윤덕 등 당대 민속악 거두들이 총집결해 있었다. 부설기관으로 관광예술요원양성소와 학생국악관현악단이 운영되었으며, 특전으로 ‘취업 및 해외 활동 알선’을 명기한 점이 눈에 띈다.

광고도 주요 면에 게재되어, 1950~60년대 음악감상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이 드러난다. 서울중앙방송국(KBS)을 비롯해 CBS기독교방송국·MBC문화방송·동아방송·서울FM·JBS-TV 등 방송국 광고에는 음악 담당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방송국마다 음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을 투입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인명록에도 방송국 소속 음악인이 열 명 넘게 포함되었다.

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 즉 앞뒤 표지의 안쪽과 표제지 앞에 마련된 권두 광고면에는 대부분 피아노 제작사들의 광고가 실렸다. 수도피아노사·동아피아노사·수도악기사·종로피아노사·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대구)·삼익피아노사·신신피아노사·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세기악기공업사(대전)·정음피아노주식회사 등이 그 예다. 화보 뒤에는 가와이피아노 한국총대리점(음악사)·하모니피아노사(정음피아노주식회사 부산직매점)·자유악기사(외제피아노 취급)·돌체악기산업사(현악기)·고려악기점·백조악기공업사 등 악기 판매점 광고가 이어졌다. 이후 국내 피아노업계의 양대 산맥이 된 영창과 삼익 외에도, 1960년대에는 다양한 피아노 제작사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들도 있었다.

주요 피아노사들은 전국에 지사를 두고, 수출용 브랜드명(쉽멜·피니히·스타인바하·케-슈타인·호루겔·호프만 등)을 내세웠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독일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들이었다. 특히 ‘쉽멜’(수도피아노사)과 ‘호루겔’(삼익피아노사)은 당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브랜드로,⁷²⁾ 독일제 부품 사용과 현지 기술자의 직접 제작 지도를 강조하며 신뢰도를 쌓았다. 영창악기는 야마하 조립으로 출발해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와 기술 제휴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거대한 공장 전경 사진

72) 1969년 기사에 따르면, 생산 규모 면에서 국산 피아노 4대 메이커는 수도피아노(쉽멜), 삼익피아노(호루겔), 영창피아노(영창야마하), 한국피아노(케슈타인/뉴슈타인) 순이었다고 한다. 정음(호프만)·동아(스타인바하) 등도 50대 이상 생산자로 나온다. “피아노, 국산품은 연주용으로 부적. 메이커 50여... ‘연 100대 이상’ 4개. 15만원서 45만원까지... 살 때는 음색 주의,” 『조선일보』 1969.12.14.

을 광고에 실었다. 동아피아노사의 ‘스타인바흐’는 책 중간에 6쪽 분량의 접지형 광고면을 두어 제품 특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피아노 제작은 1960년대 중반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상품이자 수출품으로도 주목받았다.⁷³⁾

그밖에 외제 피아노를 수입·판매하는 업체, 가와이피아노 한국총대리점, 오르간을 제작·직매하던 백조악기공업사(본점 마산), 현악기를 취급한 돌체악기산업사, 제반 관현악기와 리듬악기 일체를 판매한 고려악기점, 교육용 악기를 취급한 악기사들의 광고도 실렸다. 이러한 광고들을 통해 당시 국내 악기 제작과 유통 현황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악기 판매점들은 주로 충무로와 종로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종로 화신백화점 맞은편 신신백화점 1층에 입점한 신신악기, 신세계백화점 악기부의 광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국내 악기 제작과 판매는 당시 산업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순항했다고 전해지며, 고가의 피아노와 오르간이 팔려나간 데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⁴⁾

연주단체 광고에서는 당시 악단들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KBS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악장·인스펙터 및 수석 주자 12명의 이름을 명기했으며, 서울시향(서울특별시교향악단으로 표기)은 단장·부단장·상임지휘·부지휘·인스펙터의 이름과 주요 연주 활동을 소개했다. 부산시향은

73) “피아노 국내서 조립 판매. 회사만도 10여 개. 대당 13만원에서 23만원까지,” 『매일경제』 1968.8.9; “무박 우수상 영예 업체들 ⑤ 박람회장상 수도피아노. 피아노 5종 생산. 쉼벨 기술제휴로 제작,” 『매일경제』 1968.11.8.

74) 당시 기사에는 악기 수입 금지 조치가 국내 악기 제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한다. 이후 피아노를 비롯한 10여 종의 악기가 국산으로 충당되기 시작했다. 또한 1963년 ‘중권 붐’으로 인한 단기적 자산 효과로 자금이 부동산이나 저축으로 향하지 않고 피아노·가전·가구 등 교양적 문화소비재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소비 붐이 국산 피아노 산업의 성장과 생산 확대를 이끄는 촉매 구실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여기에 문교부가 각급 학교 설립 기준에 악기 구비를 필수 조건으로 포함시킨 점 역시, 피아노와 오르간을 비롯한 각종 악기 수요 증가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경기 타진 그 현황과 전망 (24) 악기 제작업. 금수(禁輸) 조치로 한 몫. 수요공급에도 균형유지,” 『경향신문』 1963.5.23.

합창과 독창자까지 포함된 대규모 공연 사진과 함께 상임지휘자·부지휘자·악장·단무장의 이름을 실었고, 대구시향은 상임지휘자 사진과 정기·임시 공연 횟수만 간단히 적었다. 반면 신생악단인 영필하모니관현악단은 이사장·단장·상임지휘자·상임이사·악장·후원회장의 이름을 크게 실었는데, 모두 악계 원로급 인사들이었다.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한 곳은 KBS교향악단과 영필하모니뿐이었으며, 부산시향은 ‘부산시공보실 내’, 대구시향은 전화 번호만, 서울시향은 아무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이들 전문 악단과 나란히 중앙여중교 교향악단, 성신여고스트링오케스트라 광고도 실렸다. 오페라단이나 실내악단 광고에는 한국음악협회나 수도악기사·종로피아노사 등 악기사의 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이들 단체가 독자적 사무공간이나 재정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음악협회나 악기상이 실질적인 네트워크이자 후원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합창단 광고도 눈길을 끈다. 동아방송국전속합창단⁷⁵)과 대구방송합창단처럼 방송국 소속 전문 단체뿐 아니라, 서울합창단⁷⁶)·목포 오라토리오합창단·삼천포 밀알합창단·김제YMCA전원합창단·온양샘음악회 같은 지역 합창단들도 광고를 게재해 활동을 알렸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음악 교사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음악문화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방 직후 결성된 여러 합창단의 활동 위에 이러한 저변 확대가 더해지면서, 1970년대 국립합창단과 시립합창단 등 본격적인 직업 합창단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

그 밖의 광고로는 주요 공연장이었던 국립극장과 시민회관의 좌석 배

75) 동아방송국전속합창단 광고에는 작곡가 최영섭(지휘)과 테너 단원 박성원·엄정행의 이름이 보인다. 훗날 오페라 무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는 젊은 성악가들이 당시 방송국 합창단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76) 광고에 따르면 서울합창단(단장 한국진)은 1957년 창립되었으며, 일반부 80명(준단원 40명 포함)·고등부 80명·소녀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상임지휘자 장상덕, 반주자 윤양희). 8년 동안 71회 공연과 TV·라디오 출연 174회, 영화 녹음 7편을 했다는데, 1963년 창립 6주년 공연 외에는 관련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치도가 실렸다. 이를 통해 당시 공연장의 규모(국립극장 820석, 시민회관 3,007석)와 구간별로 세분화된 대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 이전의 시민회관은 오늘날 예술의전당(2,505석)이나 롯데콘서트홀(2,036석)보다도 큰 규모였음을 보여준다. 레코드사 광고는 단 세 곳뿐으로, 대중음악 중심의 지구레코드사 외에 엔젤사 음향센터와 유니버살 레코드는 이름과 대표자만 제시되어 있을 뿐 광고 내용에 별다른 정보가 없다.⁷⁷⁾

다른 업체 광고 가운데에는 안익태가 태극기 아래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관 ‘파리寫場’, <저축의 노래> 악보와 함께 광고를 실은 대한금융단, 그리고 국제관광공사의 대한여행사·반도조선호텔·위커텔 등이 눈에 띈다. 연주회가 잦았던 음악가들에게 사진관 광고는 자연스러운 조합이지만, 금융단이나 고급 호텔이 음악가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⁷⁸⁾ 광고에 실린 업체 주소는 당시 음악 생태계의 주요 활동 공간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1984년 『객석』 창간호 특별부록에 실린 종로와 명동의 문화지도와 비교하면,⁷⁹⁾ 약 20년 동안 음악 관련 시설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연감』에 실린 광고들을 종합해 보면,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산업의 구조가 어땠는지 드러난다. 악기산업에서는 국산 제조사들이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장하며 백화점 유통망까지 확보했고, 출판 부문은 악보와 교양서적

77) 엔젤사는 경음악을 즐기는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뉴-월드 뮤직홀(천도제약 뒤)과 묶어서 광고되었으며(대표자 김태관), 유니버살 레코드는 영창악기주식회사의 대표 김재창이 설립한 음반사였다. 1959년 기사에는 자체 스튜디오를 갖춘 4대 레코드사 중 하나로 소개되었으나, 1962년 안익태의 <환상교향곡 ‘한국’> 음반 제작 기사와 1968년 『세계경음악전집』 신문 광고에 제작사로 등장한 사례 외에는 1960년대 어떤 장르의 음반을 발매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국산 레코드의 현황. 히트라야 5천장 정도. 잘 팔리는 건 가요곡과 영화주제가,” 『조선일보』 1959.5.14; “환상곡 ‘한국’ 레코드 제작,” 『조선일보』 1962.2.15.

78) 196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음악가와 음악애호가의 이미지가 교양과 경제력을 겸비한 사회적 집단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문화사회학적 단서로 읽을 수 있다.

79) 이 부록은 종로 지역 I/II, 명동 지역, 동숭동·건대·외대 지역, 신촌 지역, 여의도·영동·이촌동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A3 8쪽 분량으로 정리하고 있다.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이 교양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육 부문은 국공립·사립대학과 개인 교습소가 함께 광고에 등장할 만큼 활발한 음악교육 시장을 형성했다. 연주단체는 수적으로 다양했으나 공연기획이나 매니지먼트와 같은 중간 매개 조직은 부재했고, 레코드와 방송 부문은 산업적 규모가 작고 통합된 유통망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계는 예술의 생산과 소비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이를 연결한 중간 매개 구조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단계였다.

4. 나가며: 『음악연감』(1966)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음악연감』(1966)을 해제하면서 1960년대 중반 한국 음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았다. 해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20여 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본 음악연감이었기에 발간에 대한 악단의 기대가 컸다. 1965년 12월 『음악생활』 창간호는 곧 발간될 국내 첫 음악연감 발행 소식을 전하며 관형과 가격, 목차와 집필진까지 상세히 소개했다.⁸⁰⁾ 발간 직후 나온 기사에서는 ‘음악 70년사’와 더불어 ‘무용 40년사’가 부록으로 수록된 점을 이채롭게 평가했으며, 양악에 치중된 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악의 활동과 업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⁸¹⁾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속 음악연감은 발행되지 못했다. 10년 후인 1976년 초 『월간음악』 연감편집위원회가 그해 8월 발간을 목표로 전국 음악인·무용인 명단을 수집한다는 공지를 냈으나,⁸²⁾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한 것

80) “음악 70년사를 담은 1966년도 한국 초유의 음악연감,” 『음악생활』 창간호 (1965/12), 129쪽.

81) “『음악연감』,” 『경향신문』 1966.4.23.

82) 이들은 1966년 첫 음악연감이 명단에 누락이 많았고 내용이 편중된 느낌도 있었으며, 음악인 협조 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발간되는데 국내에서는 10년 만에 펴내는 것이니 음악인과 음악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제공을 부탁한다는 공지였다. “음악연감 발행에 즈음하여,” 『월간음악』 61

으로 보인다. 같은 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예연감』 발간을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음악계의 한 해를 총론과 분야별로 정리하는 역할은 『문예연감』의 음악 부문이 담당하게 되었다.⁸³⁾ 그러다 보니 『음악연감』(1966)은 “양악사 최초이자 유일한”⁸⁴⁾ 연감 형태의 기록물로 남게 되었다.

당시 알려졌던 기록들을 집대성한 이 『음악연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흐릿해진 과거 음악사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급격한 사회 변화과정에서 잊힌 음악가들의 행적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당시 활동했던 음악인들의 정보를 최대한 폭넓게 수집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또한 지면 곳곳의 광고에서 1960년대 중반 음악 생태계의 구조와 현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미한 단서가 된다. 본격적인 음악산업이 형성되기 전이었기에 기획사나 매니지먼트 같은 중개자의 존재는 부재했고, 음악가들의 생존 기반은 주로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음악가들의 주요 직업은 대학교원과 중등학교 음악 교사였으며, 공식 교육기관 외에도 개인 교습을 통한 레슨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양상이다.

『음악연감』(1966)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지닌다. 비평이나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전문 필자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과거를 다루는 관점과 사료 선택에서 자의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부 정보의 부정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한계가 존재하지만, ‘양악 70년사’ 서술은 이후 한국음악사의 기본 서사로 자리 잡았고, 그 오류까지도 반복되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1960년대 음악계의 지형을

(1976/1), 153쪽.

83) 1976년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문예연감』은 통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https://www.arko.or.kr/yearbook/>

84) 박선희, “긍정적 비평의식과 도약의 잠재성,” 『예술과 비평』 5 (1985), 221쪽.

파악하는데 『음악연감』(1966)은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감은 단순한 연례 출판물이 아니라, 1960년대 음악계의 사회적·제도적 구조를 반영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과 논문

- 김은영. “1910~1920년대 YMCA 음악회에서 상상한 ‘민족’.” 『경성의 소리문화와 음악공간』(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2), 73-119.
- 박선희. “긍정적 비평의식과 도약의 잠재성”(특집 · 해방 40년-비평 40년/음악). 『예술과 비평』 5 (1985), 210-235.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1946~1996』.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 음악연감편찬위원회. 『음악연감』(음악 70년사 · 무용40년 수록). 서울: 세광출판사, 1966.
-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서울: 현음사, 2001.
- 이수정. “경성악대의 음악활동 연구.” 『음악과 민족』 58 (2019), 43-84.
- 이유선. 『한국양악팔십년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국, 1968.
-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보진재, 1974
- 해군본부 정훈감실 편.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정훈 50년사』. 서울: 대한민국 해군, 1999.
- 허지연. 『제국 속의 제국. 미국의 해외선교와 한국의 음악교육』. 서울: 민속원, 2019.
- 自黒三策 編. 『音樂年鑑』. 東京: 音樂之友社, 1964.

잡지 글과 신문 기사 등

- 강석희 · 김정옥 · 최인훈 외. “[좌담] 신문화 60년의 해를 보내며. 걸치레 행사 많았으나 반성과 전진의 새 계기.” 『경향신문』 1968.12.16.
- 김성태 · 김원복 · 박용구 · 성경린 · 오현명 · 이상만. “신문화 60년 기념 심포지움 ⑥ 음악 [토론] 연주는 있어도 작곡이 없다.” 『신동아』 51 (1968/11), 340-355.

- 김자경·오현명·윤길구·최영환. “[좌담] 오페라운동의 금후. 아이다 공연을 마치고. 관객의 질·양 모두 향상. 흑자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 『동아일보』 1965.11.13.
- 김진찬 기자. “해방 20년 그 성장을 본다 (음악). 이제 겨우 끝낸 정지작업.” 『경향신문』 1965.06.28.
- 김형주. “1965년 문화계 (음악). 궤도에 오른 오페라. 음악회 서울서만 백여회.” 『경향신문』 1965.12.25.
- 박영근. “음악계.” 『예술연감 1947년판』. 서울: 예술신문사, 1947, 30-39.
- 이상만. “음악 60년의 문제들”, 『신동아』 51 (1968/11), 332-339.
- 한규동. “해군정훈음악대 약사.” 『정훈음악』 1-8 (1954/11), 21-23, 28.
- 홍종인. “근간의 가곡집(3).” 『동아일보』 1932.8.12.
- “경성악우회 음악연주회, 천기 불량한 13일 밤에 대성황으로 연주를 끝내.” 『매일신보』 1919.10.15.
- “악성 인사 총망라 음악가협회 창립. 협회 사업 제일 착수로 연4회 정기연주.” 『조선일보』 1931.2.13.
- “滿都樂團을 열광케 한 조선악협연주회. 昨夜長谷川町公會堂에서.” 『동아일보』 1931.5.30.
- “현재명작곡집 (제1집).” 『동광』 32 (1932/4), 133.
- “우리 악단의 성사. 조선최초의 썸포니 오-케스트라 ‘조선교향악단’의 처녀연주!” 『매일신보』 1941.2.21.
- “朝鮮交響樂團 「夫餘回想曲」 に 贊助出演.” 『朝鮮新門』 1941.5.8.
- “한규동 독창회. 내주일 부민관서,” 『매일신보』 1944.5.28.
- “조선교향악단 금일 공연. 비행기 헌납 연주대회 제2일 행사.” 『매일신보』 1944.9.18.
- “최초의 음악연감 편위에서 준비중.” 『경향신문』 1948.11.30.
- “음악연감 불원완성.” 『연합신문』 1949.6.24.
- “음악연감 편집진보.” 『조선일보』 1949.6.24.

- “음악오십년사 발간. 음악인명부도 수록,” 『경향신문』 1956.6.12.
- “국산 레코드의 현황. 히트라야 5천장 정도. 잘 팔리는 건 가요곡과 영화 주제가.” 『조선일보』 1959.5.14.
- “환상곡 ‘한국’ 레코드 제작.” 『조선일보』 1962.2.15.
- “경기 타진 그 현황과 전망 (24) 악기제작업. 금수(禁輸) 조치로 한 몫. 수요공급에도 균형유지.” 『경향신문』 1963.5.23.
- “민족음악의 지표. 국제무대서의 위치. 심혈 기울이는 국내창작. 거래의 새 핏줄기 5선지에 새겨.” 『경향신문』 1965.1.27.
- “유품이라곤 파커 만년필. 작곡가 윤희하씨.” 『조선일보』 1965.7.29.
- “윤희하 유작 발표회 부산음악인들 추진.” 『동아일보』 1965.8.5.
- “음악연감 발간 예정. 음악평론동인회.” 『동아일보』 1965.8.17.
- “첫 『음악연감』 발간.” 『경향신문』 1965.8.18.
- “20년 만의 흑자공연. ‘오페라의 해’를 빛낸 프리마돈나.” 『조선일보』 1965.11.14.
- “음악 70년사를 담은 1966년도 한국 초유의 음악연감.” 『음악생활』 창간호 (1965/12), 129.
- “문화계 1965. 음악. 해외에서 떨친 정진 공적. 안익태씨 별세. 부진에 허덕인 창작활동. 흑자 낸 오페라 공연은 큰 수확.” 『동아일보』 1965.12.27.
- “『음악연감』.” 『경향신문』 1966.4.23.
- “피아노 국내서 조립 판매. 회사만도 10여개. 대당 13만원에서 23만원까지.” 『매일경제』 1968.8.9.
- “무박 우수상 영예 업체들 ⑤ 박람회장상 수도피아노. 피아노 5종 생산. 씬멜 기술제휴로 제작.” 『매일경제』 1968.11.8.
- “피아노. 국산품은 연주용으로 부적. 메이커 50여... ‘연100대 이상’ 4개. 15만원서 45만원까지... 살 때는 음색주의,” 『조선일보』 1969.12.14.
- “음악연감 발행에 즈음하여,” 『월간음악』 61 (1976/1), 153.
- 그 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관련 기사.

Abstract

The Landscape of the Korean Music Scene in the Mid-1960s: An Annotation of the *Music Yearbook* (1966)

Heekyung Lee

The *Music Yearbook* (1966) marked the first comprehensive effort in postwar Korea to document the nations' musical activities of 1965 while presenting a condensed historical account of the previous seventy years. Beyond a mere compilation of statistics or lists, the yearbook reflects the editors' contemporary awareness and offers insight into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Korean music scenes in the mid-1960s. This study examines and annotates the *Music Yearbook* (1966) to reconstruct the landscape of postwar Korean music culture. It outlines the yearbook's structure and editorial organization, and analyzes its major contents in historical context — including the seventy-year history of Western music in Korea, the trends of 1965, listings of musi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and advertisements that illuminate the musical environment of the period. Through this examination, the study explores the soci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dynamics that shaped Korea's mid-1960s music scene.

Although the *Music Yearbook* (1966) contains certain biases and factual inaccuracies, it offers meaningful clues for reconstructing modern Korean music history. Its 960 biographical entries reveal the regional,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istribution of musicians, while the advertisements demonstr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structure of Korean musical life in the 1960s. As a comprehensive document of the postwar music scene, the *Music Yearbook* (1966) deserves continued attention as an essential reference for research on modern Korean music history.

Key Words: *Music Yearbook* (1966), Korean Music History, Post-Liberation Period, 1960s, Korean Music Scene in 1965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5.10.30	2025.11.4.-11.16	2025.11.18